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청

전문공보관 검사 박강일
전화 031-880-4306

보도자료

2022. 11. 18.(금)

제목

타워크레인 점거 중단 대가로 거액을 갈취한 노조간부 직접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어제(11. 17.) 수원지검 여주시청(지청장 이형관)은 노조간부 지위를 내세워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다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후 금원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공기(工期)에 쫓긴 건설회사로부터 1억 5,000만원을 갈취한 전□□노조 경기동부분부장을 구속 기소하였음
- 앞으로도 검찰은 건설현장 불법점거 등 산업현장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임

I 사건 개요

- 피고인 : A○○ [전 ○○노총 □□노조 수도권 경기동부분부장]
- 공소사실 요지
 - 피해회사 (주)△△건설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, ‘조합원 채용’을 요구하며 2021. 3. 29. 14시간 동안, 2021. 5. 11.부터 7. 30.까지 80일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(주)△△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[업무방해]
 - 돈을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점거를 계속할 것처럼 겁을 주어 (주)△△건설 대표이사 B○○로부터 2021. 7. 30. 1억 5,000만원을 갈취[공갈]
 - 위 1억5,000만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

II 수사 경과

- 2022. 6. 15. 경찰(양평서), 사건 송치(불구속)
- 2022. 8.~11. 검찰, 피의자·피해자 조사 등 진행
- 2022. 10. 28. 검찰, 구속영장 청구(10. 31. 구속영장 발부)
- 2022. 11. 17. 피고인 구속 기소

III 범행 과정

① 노조간부 지위를 악용하여 타워크레인 점거 시작

- 피고인은 2021. 3. 29. 업무상 전혀 무관한 피해회사의 공사 현장에 나타나, 자신이 '□□노조 경기동부분부장'이라며 '소속 조합원 채용'을 요구함
- 피해회사가 불응하자, 현장의 핵심 설비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14시간 동안 점거하다가 피해회사의 '처벌불원'을 조건으로 점거를 중단하고, 다음 달 피해회사에 다시 찾아가 '복지기금'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령함

②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 대가로 거액 요구

- 피고인은 2021. 5. 11. 다시 피해회사의 공사 현장에 나타나 '조합원 채용'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, 점거 중단을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함
- 점거행위는 2021. 7. 30.까지 80일간 지속되었고,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피해회사 대표이사 B○○는 직접 높이 20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점거 중단을 호소함
- 피고인은 B○○에게 점거 중단의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하였고, B○○는 어쩔 수 없이 타워크레인에서 피고인과 20시간에 걸쳐 금액을 협상함

③ 협박을 통해 거액을 받아낸 후 점거 중단

-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억5,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타워크레인 점거를 중단하고, 피해회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함

※ 합의서에는 위 금원 지급 외에도 '△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
△ 당사자들은 합의 과정과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' 등 기재

-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음

④ 노조와 무관한 개인용으로 갈취 금원 소비

-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전액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
- 결국, 노조원 고용 요구를 빌미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으나, 실제로는 고용에 관한 협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액을 갈취한 것임

IV 수사의 의의

① 건설현장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엄단

- 특정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는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또는 비노조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여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
- 이러한 행위는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해악을 끼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

② 범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질서 회복

- 건설현장의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수범으로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(工期)에 쫓긴 회사로서는 부당한 요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
- 피해회사는 1억5,000만원을 갈취당한 외에도 공사 지연에 따라 건설장비 임차료 등 약 5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고, 하청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음

※ 피해회사 임직원들은 현장 재점거 등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되자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였음

③ 노조 간부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 엄단

- 피고인은 노조 간부 지위를 악용하여 거액을 갈취한 후 개인적 용도에 전액 소비하였고, 범행 은폐까지 시도하였는바, 검찰 수사로 실체가 밝혀졌음
- 앞으로도 검찰은 노조원 채용 강요, 건설현장 불법점거 등 산업현장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임 ☑